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와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황산코발트·수산화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하카인테 히질레마 잠비아 대통령과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SK



발넓히는 LG·SK “배터리 원재료 조달 이상무”

특정국 의존도 낮춰 경쟁력 강화
LG엔솔, 加 광물업체 3곳 손잡아
SK는 잠비아와 ‘핵심 소재’ 협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LG와 SK가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추가 구축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 자체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LG엔솔, 북미 지역 공급망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의 배터리 핵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황산코발트와 수산화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렉트라와 2023년부터 3년간 황산코발트(코발트 전구체 포함) 7000톤을 공급받는다. 일렉트라는 북미 지역에서 황산코발트를 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 업체이다. 또 2025년부터 5년간 아발론이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5만5000톤, 10년간 스노우레이크가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20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수산화리튬은 고성능·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IRA가 발효되면서 북미 지역 내에서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채굴 및 가공하는 업체들과 중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일렉트라, 아발론, 스노우레이크가 위치한 캐나다는 글로벌 니켈 매장량 5위, 정련 코발트 생산 3위 등 세계적인 광물 수출 국가다. L

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IRA 인센티브 조건에 만족하는 공급망 구축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북미 시장 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광물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No.1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날인한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분야 원재료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경영 활동을 펼쳤다.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카인테 히질레마 잠비아 대통령과 만나 배터리 분야 핵심

원재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최 회장은 20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UN총회 기간동안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모인다는 점을 감안해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뉴욕을 찾아 히질레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끌어 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세계 1위의 동박 제조업체인 SK백실리스를 관계사로 두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소재인 동박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잠비아의 구리 광산은 SK에게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동박은 구리를 첨단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 중 하나다.

이번 면담으로 SK그룹과 잠비아간 협력이 구체화되면 SK그룹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SK그룹의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인 전기차배터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될 전망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중공업, 첨단 조선소 구축 고베 美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와 협력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미래 첨단 조선소(FOS) 구축에 나선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팔란티어의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를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해양 부문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2030년까지 스마트조선소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 중인 FOS의 일환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활용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첨단 자율 운영 조선소 기반 구축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 공정 뿐 아니라 최고 경영진 의사결정에서부터 영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전 영역에 걸쳐 데이터 중심의 업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 30일까지 하반기 신입 공개 채용

LS그룹(회장 구자은)이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LS는 매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LS, LS일렉트릭, LS-Nikko동계련, E1 등 4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LS의 지주사인 LS도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이며 사업전략, 경영기획, 재무관리 등 주요 업무를 2~3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통섭형 미래 사업가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상경·이공계열 등 전공 제한 없이 지원자를 받고 있다.

총 모집 규모는 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하며, 수시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여 명 수준이다. 모집 직위는 R&D(연구개발), 생산, 설계, 영업, 재경, 경영지원 등 다양하다. 4년제 정규대학(원) 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3년 2월) 등이 대상이다. 서류전형, 온라인 AI(인공지능) 역량검사, 실무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두산에너지빌리티, 이번엔 사우디 열병합발전소 수주

5400억 규모,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사우디에서만 2.3조 수주 괄목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약 54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프로젝트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디벨로퍼로 참여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자푸라 열병합발전소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건설된다.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320MW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314톤의 증기를 생산해 인근 자푸라 가스전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게 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박인원 플랜트 EPC BG장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향후 5년간 약 30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 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조 3000억 원이 넘는 공사 계약을 따내며 사우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월 1조 원 규모 주조·단조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는 8400억 원 규모 해수담수화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8일(수) 음력: 9월 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시시한 일들로 인해 웨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패아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어떤 일든 스스로 찾아서 움직여야 이루어진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다.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라. 시기를 기다려라. 오늘은 말실수를 자주하는 날이다.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변화의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밀한 계획과 판단아래 일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원수이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확실하거나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서 경이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크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때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공하게 나서지 말고 물과 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애를 뱉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실속은 있는 날이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전망하라.

오늘의 날씨			28일(수)
서울 0/20	인천 0/30	춘천 10/20	17 27
17 27	18 25	13 26	
강릉 0/20	대전 20/20	전주 10/20	15 26
15 26	15 26	16 26	
광주 20/20	대구 20/20	부산 20/20	17 27
17 27	16 25	19 26	
창원 20/20	제주 30/30	지역	17 26
17 26	21 25	강수 확률 (오전우)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1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